

2011년 가을호(통권 10호)

# 손님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 1.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2. 대구직업상담소 | 3. 대구주거복지상담소 | 4. 만평주민도서관 | 5. 대구희망무진점

☆ 자원 나눔, 나눔 협력, 사람과 세상이 변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지사항**

- 후원회차 세입금 공문 2011.10.19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입니다. 2011.08.16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입니다. 2011.08.16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입니다. 2011.08.16

**NEWS**

115주년 기념포스터 게재하기

자원봉사능력개발원 NEWS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공물뉴스 1회연보,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공물뉴스 2회연보,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공물뉴스 1회연.

115주년 기념포스터 게재하기

대구 희망무진점



115주년 기념포스터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희망

**나눔함여**


인사이드 > 인사이드

- 나눔가꾸기하기
- Smart! 영수증으로하기
- 세상이 **행복**을 공짜로하기
- 후원사에게이메일 발송하기
- 자원봉사활동 신청하기

**사진자료실**

10.4.20 - 목...  
4월 25일 자원봉사능력  
의 후원한 참여 해...

10.4.20 - 목...  
대구 희망상담소에서  
교육자문위원을 위...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만평주민도서관  
 •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053)356-0465  
 053)356-3494~5  
 053)356-0468  
 053)425-5539

www.vongsa.org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 소통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찾는 참된 소통.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미니홈피를 넘어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내 벗들과 이웃들의 근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노출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된 시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도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가급적 빨리, 즉시 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페이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르셔서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격려와 충고도 아끼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소통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언제나 숨김없이 저희들을 드러내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되겠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자원활동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 일일호프 : 영진전문대사회봉사단 대구대학생봉사단 신경훈 황순영 이청권
- 반찬 만들기 및 반찬 나눔활동 : 디자오코리아
- 밑반찬 지원 : 동구해바라기봉사단 고산동씨앗적십자봉사단 시니어봉사단 대봉교회
- 폭염대책 쪽방 집중모니터링 : 대성에너지(주) 구.뽕로로Volunteer(현,모디Volunteer) 김정민
- 동대구역 무료급식

김민우 허동헌 김인수 이찬영 박준수 김태국 조봉국 여운철 김형철 김정민 류양경 박수빈 기준호 김범호 신경훈 서재창 이훈석 황순영 김철영 김동식 최성연 김충일 김영우 권종근 정근령 정보용 오진영 광규빈 김동현 박예솔 박규진 추성욱 류기동 심준섭 이상민 엄태광 이연주 이가현 최원화 서종숙 김영호 김구슬 정한수 이용우 노푸름 이미선 마음의등불 한국전력공사대구경북본부 청하이무상사 별을가꾸는사람들 영진전문대사회봉사단 교보생명대학생봉사단

- 추석맞이 송편나눔 : KT&G상상Volunteer봉사단
- 쪽방CLEAN사업 : 대성에너지(주)
- 재가방문 : 김혜숙 김구슬 이병술 김정란 류기동 기준호 김태국 김형철 김정민 전상우 김민우 교보생명대학생봉사단
- 폭염나들이 : 김민우 김인수 허동헌 신은석 이병술
- 추석명절 상품권 배분 : 이찬영 박준수 김태국 조봉국 김민우 허동헌 김형철 김석보 유동수
- 무지개가족 운동회 /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강정현 권수현 김근미 김동호 김민우 김인수 김진수 김철영 김혜숙 박규진 배주한 백은빈 백장미 여다영 오진영 위가람 이경민 이신애 장병용 장연창 전보경 전주영 정윤경 조상원 허동헌 홍성철

- 도서관 서가정리
- 고재원 김성호 김승목 김승환 김원동 김재훈 김진혁 김창환 김한기 노동혁 박상우 박주영 박지훈 박철현 변성욱 서재문 서정득 손민한 신현업 엄성준 유종민 이강일 이성계 이승호 이재혁 장운홍 정상경 조성국 조제우 최은성 추승훈
- 도서관 자원교사
- 김대기 김세일 서준영 이상현 이창순 전성희 조현정

2011년 가을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06

02 심표

04 여는 시 Old and Wise

05 여는 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윤승걸 원장

함께한 나날들

06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8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11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 대구주거복지센터

12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만평주민도서관



08

현장 이야기

14 2012년 6월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됩니다. |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



12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16 이팝나무 사업단이 준비하는 따신 밥 한 그릇 | 이팝나무 사업단 서준영

17 가족과 함께 간 거창서울우유공장견학 | 김나연

18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매력 | 김정민

19 쪽방을 다녀와서 | 한승훈

회원동정

22 신규회원소개

살림살이

22 법인 & 만평주민도서관 후원자 및 결산

23 대구쪽방상담소 후원자 및 결산



18

사랑을 나눠주세요.

24 사랑을 나눠 주세요.



● 표지이야기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개발원과 부설기관의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가고자 합니다. 개발원의 귀한 역사가 되고 추억이 될 모든 일에 함께해주세요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영달

편집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메 일 vongsa@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vongsa.org>

## Old and Wise

- The Alan Parsons Project -

As far my eyes can see  
내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There are shadows approaching me  
나에게 다가서는 그림자들이 있네

And to those I left behind  
내 뒤에 남겨진 이들이여

I wanted you to know  
당신들이 알아주길 바랬다네

You've always shared my deepest thoughts  
당신들은 항상 나의 깊은 생각들을 공유했다는 것을

You follow where I go  
내가 어딜 가든지 당신들은 함께였지

And oh when I'm old and wise  
내가 더 늙고 지혜로워지면

Bitter words mean little to me  
아팠던 말들도 내겐 큰 의미가 없겠지

Autumn winds will blow right through me  
가을바람이 내 옆을 스쳐 지난 것뿐 인 걸

And someday in the mist of time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의 안개 속에서

When they asked me if I knew you  
사람들이 내게 당신을 아냐고 물어오면

I'd smile and say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겠지

You were a friend of mine  
당신은 내 친구였었다고

And the sadness would be lifted from my eyes  
그러면 내 눈가에 깃든 슬픔도 사라져 버리겠지

Oh when I'm old and wise  
아, 내가 늙고 현명해질 때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윤승걸** 원장



“봄부터 여름 지나 완전한 지금의 가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들리지만 올 한해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하개발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정말이지 실감나는 말일게다. 15년이라는 역사의 무게감 때문일까? 우리는 올 한해 감당 하리 어려울 만큼 많은 난제와 과업들을 안고 지금까지 즐기 차게 달려오고 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만든 과업들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발생된 난제 또한 있다. 해결된 과업들도 있고 풀어야할 난제들도 있다. 왜? 무엇이? 누가?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과업과 난제들을 던져주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 볼만한 사실은 이것이 개인에게 던져진 일이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고 다가오는 시간을 그저 바라보면서 도망쳐 버렸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혼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과제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고 또한 그 과정 중에 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개발원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같을 수 없듯이 각자가 다양한 비전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삶의 경험과 삶의 자산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개발원의 중·장기 전략수립의 한 측면에서”라는 대의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소통의 부재 속에서는 때로는 불만도 표출되고 힘들어 하기도 한다. 법인설립기념일 연수 때 15년 역사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임직원, 회원 난상토론을 통해, 하계회원 연수 때 팔로워십에 관한 책 나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발견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가치의 이해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나누었다.

꿈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쉽고 편 할리 만무하다. 우리 함께 떠나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미래그리기’와 ‘꿈 찾기’에 당면한 현실과 과정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랬듯이 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에,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가을이 가고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매년 어김없이 진행되는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나눔 캠페인 또한 곧 그 시작을 알릴 것 같다. 나눔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나눔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많은 이들을 만나보기를 기대해본다.

#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 1. 2011년 4월 ~ 현재 : 밥집회의, 오픈 준비 중!!

법인이 지금까지 함께 해온 지역주민들에게 마음 가득 담은 밥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법인이 드디어 오픈을 준비하며 지난 9월 19일부터 공사를 시작 9월 29일 현재 내부공사 중입니다. 무료급식, 생필품 나눔 등 쪽방상담소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법인이 소중하게 생각해온 지역사회중심의 일환으로 오픈하게 될 밥집 "따신 밥 한 그릇"의 소중한 밥상에 모두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게 될 OPEN DAY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2

### 2. 2011년 4월 29일 : 내국인가족 간담회

3월부터 4기 결연가족에 참여할 다문화가족, 내국인가족을 신청 받고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을 마친 후 내국인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의 상황과 욕구를 공유하고 다문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국인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4기 결연가족의 행복한 동행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3

### 3. 2011년 4월 30일 ~ 5월 1일 : 15주년 설립기념행사

'함께해 온 15년, 함께 가는 우리' 라는 주제로 임원, 직원,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포항산림수련관에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설립 15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설립 15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원 활동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처음의 뜻을 잃지 않고 묵묵히 활동하겠습니다.



4

### 4. 2011년 5월 14일 : 결연가족 첫 만남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결연가족과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올해 4기 결연가족은 특별하게 가족별 테이블을 마련해 한 공간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부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등 조금 서툴고 어색한 대화지만 천천히 물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나눈 대화를 글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발표도 하고 신나는 게임도 즐기면서 5월의 따뜻한 햇살만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5

### 5. 2011년 5월 19일 : 후원의 밤

'또 다시 봄은 오고' 라는 주제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15주년 기념, 대구쪽방상담소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쪽방주민의 보디나온 삶,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후원의 밤 행사는 올해 나눔 밥집 마련까지 더해져서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역기업인 대성에너지, (주)분도석유, (주)한국알파시스템 등은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해서 더 훈훈한 후원의 밤 행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족한 행사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6

### 6. 2011년 5월 22일 : 컬러풀다문화축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컬러풀다문화축제에 참가하여 한국전통의상을 입은 신랑신부 종이 접기체험, 결연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참가를 통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다른 단체의 활동들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축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시대'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7. 2011년 5월 27일 : 결연가족 자매결연식**

4기 결연가족의 자매결연식이 1~3기 결연가족, 친구가족, 지역단체의 축하 속에 비엔나 웨딩에서 열렸습니다.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식'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넘어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자리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4년째 진행되는 만큼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두 가족의 결연이 결연식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8. 2011년 6월 8일 : 뮤지컬관람**

본 법인과 협약을 맺고 있는 광개토병원 문화센터에서 극단 동성로의 뮤지컬 '봄이의 지구별 소풍'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극단 동성로의 창작 뮤지컬인 '봄이의 지구별 소풍'은 어린 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삶을 보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하며 성장한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어둡지 않고 밝게 그려낸 뮤지컬입니다. 쪽방주민분들과 만평주민도서관 아이들, 학부모가 병원 관계자와 환우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연을 관람하였고 지역의 문화단체와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 2011년 6월 25일 : 결연가족 문화탐방**

4기 결연가족과 1,3기 결연가족, 친구가족 70여명과 함께 경주국립박물관, 기림사, 오류해수욕장으로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박물관과 기림사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를 익히고, 비ئات가에서 발도 담그고, 솔밭에 앉아 게임을 즐기면서 결연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지만 오히려 비온 뒤 경주의 맑고 깨끗한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함께한 가족들 모두 예쁜 추억을 담아갔길 기대합니다.



**10. 2011년 8월 5일 ~ 6일 : 하계연수**

논실마을학교로 직원, 운영위원, 회원들과 함께 '별을 찾아 떠나다'라는 주제로 하계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연수는 직원들이 미리 읽고 공부한 '팔로워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연수 주제에 맞게 별자리 특강을 듣고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별'을 간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영향력 있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11. 2011년 8월 21일 : 무지개가족 운동회**

'제2회 FUN-DAY 무지개가족 운동회'는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1~4기 결연가족과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회원, 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과 공동체 놀이를 즐기는 신나는 날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무지개가족 운동회는 2기 결연가족의 의견으로 시작되어 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화선 이화선 대표, 대구은행팔달지점, 대한생명성서지점 지점장, (주)한국알파시스템 등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운동회였습니다.



**12. 2011년 9월 2일 ~ 9일 : 수익사업 사과판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맞이 수익사업 사과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직원, 쪽방주민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배달하는 사랑이 듬뿍 담긴 사과를 매년 찾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농약 친환경 인증사과' 당도 높은 고품질 사과 '합리적 가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년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 2011년 10월 6일 ~ 10일 : 필리핀 해외연수**

직원, 회원가족과 필리핀 막탄섬으로 직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해외지원사업 현지답사를 겸한 이번 연수는 해외 아동지원, 현지 마을 도서관 세우기 등의 사업을 위해 현지의 경제 상황을 듣고, 빈곤지역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마젤란 십자가와 그것을 기념하는 산토리노 성당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역사를 이해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향후 법인이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언론에 비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 ▶ 영남일보 5월 24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대구쪽방상담소 설립기념 후원의 밤 성황
- ▶ 대구일보 5월 29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내 - 외국인가정 결연식

#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1. 4월 7일 : 홀리스지원법 설명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전국홀리스연대, 홀리스행동은 강명순, 유재중, 이낙연,곽정숙 4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노숙인복지법률안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현장활동가들과 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법률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표명하였다.

## 2. 4월 28일 : 동구 반찬나눔 (해바라기봉사단)

해바라기봉사단에서 반찬을 만들어 동구지역 쪽방 나눔활동과 이불세탁지원을 했다. 틈틈이 이렇게 활동 해주시는 해바라기 봉사단체 글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3. 5월 12일 : 전국주거복지컨퍼런스

제2회 주거복지컨퍼런스가 지난 5월 12일~14일 LH 대전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주거복지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가하여 2박 3일 동안 주택개량, 재개발, 도시재생, 노숙·쪽방·장애인 등의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윤승걸 소장, 장민철 국장, 이경희 운영위원 등이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였다.

## 4. 5월 24일 : GM대우 차량기증식 (다마스)

쪽방은 주로 골목에 많이 분포 되어 있어 현재 있는 스타렉스 차량으로는 진입조차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GM한마음재단에서 "다마스"를 기증받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 5. 5월 24일 : 인의협-쪽방상담소 의료세미나 개최

"쪽방주민들의 생활실태 및 대구쪽방 무료진료소 의료체계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와 함께 의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의료세미나는 쪽방주민들의 의료실태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 6. 5월 25일 : 분도석유 MOU 체결

(주)분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과 "취업취약계층 직업교육사업 MOU체결"을 맺었다. 분도 아카데미는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에 교육 수수료 후 주유 및 세차 등 주유소 취업이 연계된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7. 6월 10일 : 대구 서구지역복지협의회 워크숍 개최

서구지역복지협의회체는 '복지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복지협의회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6월 10일~11일 양일간 팔공파크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법인 및 쪽방상담소, 만평주민도서관의 실무자들도 워크숍에 참가하여 지역 기관의 실무자들과 소통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8. 6월 28일-29일 : 쪽방 희망회 집중고민나누기 워크숍

1박2일 검봉산 자연휴양림으로 '희망회' 집중고민나누기 워크숍을 다녀왔다. 간만에 콧바람도 좀 쐬고, 바다도 구경하고, 다 함께 모여 앉아 희망회칙 변경, 회장 선출 등 앞으로 이끌어갈 희망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 9. 10월 4일 : 쪽방상담소 운영위원회

지난 4월 28일(제12차), 6월 21일(제13차) 운영위원회에 이어 10월 4일 제14차 운영위원회가 대구쪽방상담소 3층에서 진행되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모여 쪽방주민들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논의하고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2



3



4



5



6



7



8



**10. 7월 20일 : 재가방문 사례관리팀 설명회**

광개토병원 6층 문화센터에서 폭염대책 대구쪽방지역 재가방문활동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장민철 국장과 강정우 팀장의 설명 아래 쪽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가방문의 필요성, 취지 등을 들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가방문 활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7월 22일 : 보건복지부 대구시 폭염대책회의 참석**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취약계층들이 위기에 노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별 혹서기 대책 및 민간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는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구시는 폭염에 대비해서 아 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의 확대 및 응급의료지원체계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12. 8월 2일 : 민주당 주거복지대책위원회 간담회**

민주당 주거복지대책위원회는 주거복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해보고 정책개선과제를 고민해보고자 민간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민간측 전문가들은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소속의 각 단체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쪽방상담소협의회에서는 윤승걸 회장, 장민철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날 간

담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여 민간단체들의 의견과 제안들을 들었다.

**13. 8월 3일 : 폭염나들이**

쪽방주민 50여명을 모시고 함께 청송달기약수터 및 천지갑산으로 폭염나들이 다녀왔다.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화창한 날씨 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다.

**14. 8월 18일 :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CBS 생방송토론회 참석(장민철)**

서울역은 야간에 노숙인들이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실제로 무더위가 지난 8월 22일부터 노숙인들로 보이는 이들의 야간출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동대구역사에서 당사자 및 장애인지역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저녁에는 전국 거리노숙인 일제조사가 있었다. CBS 월요기획에서도 '지역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시, 노숙인쉼터, 노숙인상담센터, 쪽방상담소 등의 단체들을 패널로 초대하여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15. 8월 24일 : 북부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홍보' 쪽방 방문**

대구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 날 대구지역 쪽방현장을 방문해 비주력거주자 및 쪽방주민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쪽방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16. 8월 26일 : 이OO 돌잔치**

지난해 대구의 쪽방촌에서 만나 결혼한 한 부부에게서 천사같이 예쁜 여자 아이가 태어나 어느덧 첫 돌을 맞이하였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지극처럼만 예쁘고 튼튼하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 8월 29일 : 쪽방주민 육상선수권대회경기 관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표를 후원받게 되어 쪽방주민 약 30분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왔다. 경기시작 전 각 부스 구경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열심히 응원도 하며 간만의 즐거운 바깥나들이를 즐기고 왔다.

**18. 9월 3일 : KT&G 상상 volunteer 송편나눔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반찬나눔**

적십자 봉사단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반찬과 KT&G 상상 Volunteer 학생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들고 쪽방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펼치며 쪽방주민들에게 가슴 따뜻한 정(情)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



10



12



13



14



16



17



18

**19. 9월 6일~9일 : 추석 명절맞이 상품권 배분활동**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750set을 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구지역 쪽방주민들에게 배분하였다. 얼어있는 쪽방주민들의 마음이 갈수록 따뜻해 질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20. 9월 9일 : 명절맞이 합동 차례상 차리기 & 서구청 헌옷 600점 전달식**  
추석을 맞아 서구청에서 쪽방주민들에게 드릴 헌옷 600점을 후원받았으며, 그날 저녁에는 쪽방주민들과 함께 올해 3년째 되는 명절 합동 차례상 지내기를 진행하였다.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차례도 지내며 조금은 덜 외로운, 그리고 마음 따뜻해지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21. 9월 27일 : 쪽방상담소&대성에너지 '쪽방클린사업' MOU체결**

대구쪽방상담소와 대성에너지(주)간 '쪽방클린사업' 상호협력약정(MOU) 조인식을 하였다. 폭염대책 쪽방지역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꾸준한 관심과 후원 및 격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좀 더 나은 주거환

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

**22. 7월-9월 : 폭염대책 집중 재가방문 모니터링**

대성에너지(주)와 뿌로로봉사단과 함께 두 달 동안 폭염대책 쪽방 집중재가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쪽방주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위기 발생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었다. 더운날씨에도 수고하신 봉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23. 희망회**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쪽방주민 자조모임 '희망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 그간의 안부도 묻고, 정도 나누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견도 같이 공유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희망회는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다. 그동안은 각박한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라는 희망회 안에서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있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회 회원들의 바람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란다.

**24. 디아지오코리아 반찬만들기 및 반찬나눔**

5월 17일 디아지오코리아 반찬후원 협약식을 맺고 매 월 넷째 주 금요일 디아지오코리아와 함께 반찬만들기 및 반찬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약 10여 명의 임직원들과 쪽방 당사자분들이 함께 조를 나누어 재료도 준비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인생 이야기도 나누며 정도 나눈다. 반찬만들기 프로그램은 반찬을 만드는 방법도 배울뿐더러 더불어,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하다.

**25. 시니어봉사단**

60세 이상 어머님들로 구성된 시니어 봉사단에서 매주 반찬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머님들의 숙련된 솜씨와 손맛으로 여러 종류의 반찬들을 한가득 만들어 쪽방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다. 1층 나눔가게 옷 정리, 주방 청소 등의 다른 활동들도 해주시며, 항상 묵묵하게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시니어 봉사단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언론에 비친 대구쪽방상담소 \***

- [신문 및 인터넷] 기사
  - 8월 03일 : '이투뉴스' 대성에너지, 쪽방에 '지원한 사랑나눔 바람' 'CNB뉴스' '쪽방촌에 희망을..'
  - 8월 11일 : '경북일보' 대경 자산관리공, 쪽방주민에 물품 기증
  - 8월 14일 : '대구일보' "무더위 속 쪽방주민들 힘내세요" '대구일보' 쪽방주민 폭염나기 캠페인
  - 9월 08일 : '문화일보' "자활통해 쪽방 벗어나도록 친구가 돼 주세요"
  - 9월 27일 : '네이버뉴스' 대성에너지, 10월부터 매달 쪽방에 도배 장판 교체 및 청소봉사 'CNB뉴스' 대성에너지-자원봉사능력개발원, '쪽방 클린사업' '이투뉴스' 대성에너지, '쪽방 클린사업' 펼친다.
  - 9월 29일 : '에너지경제신문' 대성에너지, '쪽방 클린사업' MOU체결
  - 9월 30일 : '영남일보' 대성에너지 '쪽방클린사업'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라디오] 인터뷰
  - 6월 22일 : 'TNB 교통방송' 인터뷰(장민철 사무국장)
  - 7월 28일 : 'MBC 라디오 여론현장' 폭염관련 인터뷰(최은경 간사)
  - 7월 29일 : 'KBS 아침의광장' 폭염관련인터뷰(장민철 사무국장)
  - 8월 22일 : '대구평화방송 행복한세상931' 인터뷰(강정우 팀장)

#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 1. 2011년 4월 11일, 12일 : 개발지역 주거약자 임파워먼트 향상-재개발·뉴타운 시민강좌

손낙구(‘부동산계급사회’ 저자), 이주원(‘뉴타운아는 것이 힘이다’ 저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강사분들께서 대구참여연대 강당에서 부동산계급사회와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절차 및 사업방식, 도시재정비사업과 주택/상가세입자 손실보장등의 내용으로 지역의주거취약계층 및 재개발, 뉴타운지역, 주택/상가세입자들을 위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강좌를 진행하였다.

## 2. 2011년 4월 30일 : 주거복지 사례관리 컨퍼런스

2011년 4월 30일 포항삼림수련원에서 2010년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1차년도 사업성과와 긴급임대료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증금 대출사업 등 1년동안 진행되어온 주거복지 직접 지원사업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거복지서비스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례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이번 ‘주거복지 사례관리 컨퍼런스’는 직접지원사업의 당사자와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컨소시엄 실무자들의 친목도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시외에서 자연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 3. 2011년 5월 12일~14일 : 주거복지컨퍼런스

2011년 5월 12일 ~ 14일까지 2박 3일동안 LH공사 대전연수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주거복지관련 민.관.공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의 이념적, 실천적 논의와 주거복지의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주거복지와 관련된 NGO, 공공부문, 학계 및 연구자, 산업 등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주거복지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넓은 주거복지의 폭넓은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 4.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2011년 5월 28일 동구 울하휴먼시아5단지 울하마을 한마을축제에 초대되어 주거복지이동상담소를 열고 긴급주거서비스 및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9월 24일 대덕 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회 남구복지박람회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남구지역민들의 주거에 관한 궁금

증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및 파산·면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9월 28일 남구복지관과 함께 남구 대명1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이동상담을 실시 하였다.

## 5. 전국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2011년 4월 25일, 5월 27일, 6월 21일, 9월 14일, 9월 29일 전국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주거복지센터 2차년도 사업공유와 전국주거복지센터 공동사업 대표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구주거복지센터가 전국주거복지센터공동사업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주거복지센터의 비제작 및 교육훈련워크숍 일정 등을 조율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하였다.

## 6. 2011년 6월 21일 : ‘임대료 연체 가구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가 주최하는 임대료 연체가구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임대료 연체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파악, 정책개선과제 도출,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민간 및 공공영역의 역할 정립, 지원서비스의 바람직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방안마련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주거복지센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과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적절한 지원체계방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7. 전국 주거복지센터 협의회 교육훈련 워크숍

2011년 7월14일~16일 울진구수곡 자연휴양림, 9월20일~21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교육훈련 워크숍을 하였다. 전국센터업무공유와 전국주거복지센터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각 센터 실무자들의 고민 나누기, 주민들과의 대화기법 등을 논의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좀 더 쉽게 다가 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1. 2011년 5월 5일 : 어린이날 행사

만들기, 베틀시장, 천연염색, 마당극,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한 서구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클레이아트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며 서구지역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 부스는 문화강좌 자원교사 김대기 선생님과 함께 어머니들이 운영해주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만평주민도서관 어린이, 학부모, 자원활동가 등 서구지역 어린이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



## 2. 2011년 7월 8일 : 도서관 주민회의

6년 동안 정들었던 현재의 원대동 사무소 이전에 따라 이제 두 돌을 맞이한 '만평주민도서관'의 운명을 고민하던 중 지역주민을 위해 시작한 주민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 존속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도서관 회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모여 향후 도서관의 운영방안과 도서관의 위치선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통해 만평주민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회원들이 향후 도서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완전한 주민자립형 도서관에 대한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3. 2011년 8월 1일 ~ 8월 19일 : 씨앗학교

여름방학 씨앗학교 '꿈꾸는 도서관, 신나는 방학놀이터'를 개강하여 만들기교실, 논술교실, 민요교실, 역사교실, 풍선아트교실, 신문 활용수업 등 다양한 수업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씨앗학교는 김세일 선생님의 풍선아트교실이 새롭게 개강하여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 여름 방학도 도서관에서 생각도, 기도 한 뼘 더 자라났길 바랍니다.



## 4. 2011년 8월 8일 : 거창서울우유공장 견학

도서관 친구들, 어머니들 40여명과 함께 거창서울우유공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유의 효능 등에 대해 홍보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포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견학을 마친 뒤에는 우유팩으로 만든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며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송대 물놀이와 거창문화센터를 방문해 현대미술작품까지 감상한 알찬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배움이 되고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 5. 2011년 8월 19일 : 마술교실 공개강좌

씨앗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마술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공연단체 '반반'의 이상헌 대표가 진행한 마술교실에서는 '지페나 동전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 '콜라 캔 안에 콜라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 '매듭 풀기 마술' 등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씨앗학교 강좌 중 가장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6. 2011년 8월 28일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람

SK대학생 봉사단 씨니와 도서관 친구들 25명이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대회를 관람했습니다. 씨니 봉사단 학생들과 1:1로 짝을 이뤄 관람했습니다. 도서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경험하고 봉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방식의 체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7. 2011년 9월 28일 ~ 10월 1일 : 도서관네트워크 제주도

대구지역의 작은 도서관 실무자 및 봉사자 11명과 함께 제주도로 '마을도서관 네트워크'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우수작은 도서관으로 도서관 사례집을 펴낸 설문대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게스트하우스와 찻집운영을 함께하는 달리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의 틀을 벗어난 색다른 공간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역의 실무자들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보다 재미있고,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가길 기대합니다.



### 8. 2011년 우수 사립 작은 도서관 선정

만평주민도서관 개관 2년 만에 우수작은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양질의 다양한 책 구입과 도서관 비품구입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랫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 언론에 비친 만평주민도서관 \*

- ▶ 대구신문 8월 10일 : 최우수 마을도서관 서구 만평주민도서관
- "아이는 책 읽고 엄마는 강좌 듣고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문화 사랑방"

#### \* 도서관 이전 안내 \*

- 이전예정지 주소 : 대구시 서구 비산5동 1040-5번지 1층
- 장소 안내 : 인지초등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150M 정도 쪽~~ 걸다가 돌돌이 문구 가기 전 치킨집 맞은 편
- 필요한 물품&재능&인력 : 책상, 컴퓨터, 각종 문구류, 이사 자원 활동, 미술·피아노·POP·요리 등 다양한 문화강좌 자원교사

[현재 도서관 보다 좁은 공간이지만, 1층이고 차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터를 잡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소통공간 만평주민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2012년 6월부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 장민철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랑인복지정책 및 노숙인복지정책은 개별법률 없이 단순한 ‘부랑인 및노숙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시설운영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에서 오는 많은 제도적 문제점,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부재 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에서는 ‘홈리스법입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입법추진 활동을 시작하였다.

입법추진활동은 부랑인시설, 노숙인시설 뿐만 아니라, 쪽방협의회, 홈리스관련 연구단체, 당사자운동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며, 이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법안발의를 이끌어 내었다.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진행경과

- 홈리스법제정 청원 서명운동(쪽방협의회,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제안)
- 한나라당(유재중, 강명순), 민주당(이낙연), 민주노동당(곽정숙) 등 4가지 법안발의
- 곽정숙 의원실, 이낙연 의원실 공청회 개최
- 홈리스법 청원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제출(국회 브리핑룸, 2월 22일)
- 홈리스지원법 제정관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성명서 발표(3월 02일)
-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국회의사당 앞, 3월 03일)
- 홈리스입법추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2011. 4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011. 6월)
- 법률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TF팀 가동(2011. 7월)
- 2012. 6월부터 법률 시행예정

### ■ 법률의 주요 의의

- 노숙인, 부랑인 등은 물론이고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되는 정책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통합 일원화하게 됨.
- 법률에 근거하여 노숙인 등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노숙인 등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수립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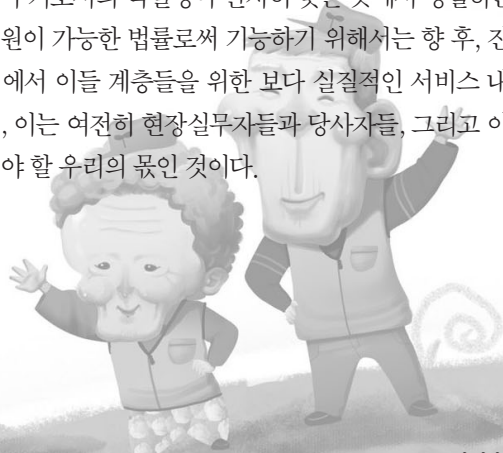
■ 앞으로 쪽방주민들과 쪽방상담소에 미칠 영향은?

지금까지는(~2012. 5.)	법 시행 이 후에는(2012. 6. ~)
<p>쪽방주민들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이 없었다.</p>	<p>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책대상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서비스 기준 제공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쪽방상담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라서 예산지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였다.</p>	<p>'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혹은 '현장상담소' 등의 시설로 재편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인 시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p>
<p>각 지역별 상담소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공통적으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이 부재하였다.</p>	<p>시설의 목적과 역할이 분명해짐에 따라 매뉴얼화 된 서비스의 제공을 기본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p>
<p>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경력, 직책 등에 따른 실무자들의 처우가 다른 노숙인 관련시설들에 비해 열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잦은 교체가 반복되었다.</p>	<p>최소한의 시설종사자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실무인력이 양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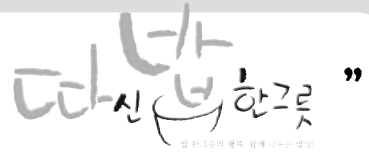
■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당초 쪽방협의회 및 당사자운동단체 등이 요구했던 광의적 개념의 'Homeless' 라는 대상의 범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숙인 등'이라는 단어를 법률용어로 결정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을 세울 경우에는 그 대상이 기존의 부랑인 및 노숙인 수준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그러니 만큼, 법률에서 정의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다수의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률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이들 계층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여전히 현장실무자들과 당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만들어 내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이다.



## ‘이팝나무 사업단’이 준비하는 밥집



이팝나무 사업단 서준영



밥집 ‘따신 밥 한 그릇’ 을 준비하며 좋은 밥집 이름을 찾고 공모하다 설화(說話)속 ‘이팝나무’의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팝나무는 하얀 쌀밥이 많이 그리웠던 보릿고개의 그 시절, 조팝나무, 이팝나무, 백미꽃 등을 흰쌀밥에 비유하여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하얀 꽃잎이 소복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밥그릇에 흰 쌀밥이 가득 담겨져 있는듯하여 눈으로라도 실컷 포식을 하였던 시절의 아픔입니다.



이제 그런 아픔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결식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있고, 질 좋은 먹거리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질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밥집 ‘따신 밥 한 그릇’은 이팝나무가 피운 하얀 쌀 꽃처럼 누구의 삶이든 굵지 않고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밥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담아 밥상을 차려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문을 나설 수 있는 밥집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준비해 온 밥집 ‘따신 밥 한 그릇’이 이제 개점을 눈 앞에 두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1년 10월 대구 서구에서 문을 열게 될 밥집 ‘따신 밥 한 그릇’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착한 가격, 맛있고 깔끔한 뷔페식 전채요리와 가정식 백반, 무항생제 친환경 닭개장을 비롯해 가마솥 튀김 닭, 전기구이 등의 닭요리 메뉴로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푸짐하고 넉넉한 밥상을 차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밥상을 좀 더 많은 분들, 특히 조금 힘이 더 드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정직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최상의 맛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열심히 열심히 차린 저희 밥상으로 수익금이 생겨 그것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밥집 운영을 바탕으로 개발원의 사업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함께 저희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위 분들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밥집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한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결산 공개, 수익금 처분, 출자금 상환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신 밥 한 그릇’은 좁은 공간이지만 넉넉한 나눔의 가치가 녹아있는 공간,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 가족과 함께 간 거창서울우유공장 견학

인지초등학교 5학년 김나연



만평주민도서관에서 거창서울우유공장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난 우유공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전날 밤 잠을 수가 없었다.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갔는데 가는 동안에도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정말 궁금했다.



드디어 도착!!!

나는 메모지랑 필기도구를 가지고 공장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은 우유곽으로 만든 동물들이었다. 난 동물 앞에서 찰칵 사진을 찍었다. 안내 언니가 영상을 보여주었다. 젓소에서 우유를 짜내어서 탱크로리라는 차에 실어 공장으로 운반되고, 운반 되어온 우유는 살균과정 등을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 공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우유가 젓소에서 그냥 짜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우유는 두뇌 발달에도 좋고,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한다.

난 앞으로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도 많이 커져야겠다.

오늘은 우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서 기쁜 날이다.



##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매력

쪽방상담소 재가방문 자원봉사자 김정민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2학년 김정민 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쪽방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교양과목을 신청하게 되면서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쪽방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재가방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봉사시간을 채우고자하는 마음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여쭙보는 등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재가방문활동을 하면서 느낀 봉사활동의 매력은 첫째,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저 혼자만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해야 쪽방주민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이 늦은 시간에 집을 방문 할 때마다 귀찮으실 수도 있고, 나이 어린 봉사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힘드실 테지만 항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



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봉사자만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물품을 챙기며, 봉사활동을 나가서 주민 분들과 말을 나누면서, 봉사활동 후 간담회를 하면서 즉, 모든 과정에서 받은 여러 도움으로 인하여 서툴지만 차근차근 봉사를 해나갈 때 이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셋째, 진정한 봉사활동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의욕만 앞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숙지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저 무작정 주민들께서도 봉사자를 처음 보시는게 아니니 알아서 대해주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봉사활동에서는 달랐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 ‘내가 이분들을 만나 뵙기 전 마음가짐부터 틀렸구나, 또 노력도 준비도 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고 많은 반성을 할 때 봉사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이번활동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자원봉사활동이란, 여러 사람들과 봉사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호존중, 협력, 인간애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자의 배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정체성의 기반 마련과 같은 봉사자 스스로의 내면적 의식성장의 계기로도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은 살아가면서 꼭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추천! 적극추천! 합니다! 동시에 봉사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것도 ‘강력추천! 적극추천! 합니다!

항상 시작이 어려운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저의 미숙한 봉사활동 때문에 누가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간사님들께도 죄송스러웠으나, 서툰 과정 속에도 얻어가는 행복, 기쁨이 제가 꾸준히 재가방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원동력인 듯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쪽방상담소에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쪽방을 다녀와서

대성에너지(주) 그루터기회장 **한승훈**

지난 8월 2일 저녁,  
대구쪽방상담소와 대성에너지(주) 그루터기봉사단이 쪽방주민의 실태확인과 폭염물품 전달을 위해 매주 화요일 ‘쪽방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한 첫날이다.



며칠 동안 내렸던 비 때문인지 습기로 인한 눅눅함을 몸으로 느끼며 얼음생수와 선풍기 등을 챙겨 들고 좁다란 골목길 앞에 섰다. 골목길을 따라 촘촘히 들어선 허름한 집들을 한참 지나서야 김모 할아버지(78세)가 사시는 쪽방을 방문할 수 있었다.

꽤 쾌한 곰팡이 냄새와 딸각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소리, 두 평 남짓한 방 한 칸에서 아픈 몸을 누이고 계시는 할아버지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하셨다. 얼마 전 수술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와준 우리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요즘 힘든 점은 없으시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수술 받고 왔더니 지원금이 줄었어. 이거 받아서는 방값내고 나면 없어. 구청에 가서 하소연해 봐도 ‘다음부터 더 드릴게요’ 하고선 지금도 이것밖에 안 나와.”라며 낡은 통장을 하나를 보여주신다. 입금내역을 살펴보니 생활지원비와 노령연금 등이 작년보다도 줄어 이번 달은 3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가끔씩 교회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다 줘서 근근이 생활하신다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잊지 않고 방문해주는 우리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신다. 준비해간 생수와 선풍기를 전달하고 방을 나섰지만 뿌듯함 보다는 서글픔이 더 큰 방문이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골목길 옆 허름한 여인숙이었다. 2층에 위치한 방에는 박모할머니(67세)와 임신한 딸, 그리고 5살 손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지만 천장과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로 물들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여기저기 어지럽혀져 있었다. 산모와 아이에게는 시급한 이주와 산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라 쪽방상담소 장국장님이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설명과 함께 산모에 대해서는 육아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하였다.



이후 방문한 서너 곳의 쪽방사정도 앞서 방문한 쪽방과 비슷한 환경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일행은 골목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말로만 들던 주거소외계층인 쪽방의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마음 한편의 찜찜함은 떨칠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 높다랗게 솟아있는 관공서 건물과 지나가는 외제 승용차들이 오늘따라 더 밟상이다.

더운 여름철 나눔  
활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신 단체



대구은행 생활물품 나눔전달



대성에너지 선풍기 나눔전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선풍기, 생필품 나눔전달



대구의료원 간호봉사단 생필품 나눔전달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19

### 새롭게 손잡은 회원을 소개합니다.

강진일 권정희 김기홍 김명준 김상준 김성진 김성호 김영주 김인규 김현태 남완석 노현택  
류희곤 박경희 박광우 박종률 박창준 손명현 송재관 윤광묵 은정희 이상진 이정구 이지혜  
이창순 이흥민 장석태 장준배 장효기 정동건 정영희 조대성 최은지 최재희 한도경 허동웅  
황남연 (주)대성에너지 노사협의회

### 자발적 후원금 인상 회원을 소개합니다.

권영희 김신지

### 신임회원



#### 권정희

작년 가을 쪽방이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TV에서 보는 것과 너무 상반되어있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찌이리 다를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할까? 수도하나 화장실 한 칸!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하고 ~~ 작은 힘이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박광우

소식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쪽방상담소와의 인연으로 일정액(?)을 후원하기 까지엔 묵묵히 일선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정! 전 그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쪽방상담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열정바이러스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부, 후원 이런 단어들은 왠지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열정이란 단어는 따뜻한 느낌과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어떤 마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 최은지

회원인 신지숙 선생님의 소개로, 쪽방상담소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원이 되었구요.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함께 하다 보니 친숙해지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원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이 되었듯이, 저 또한 개발원의 성장함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기/관/별/일/정/소/개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일정

- ▷ 10월 말 ~ 11월 초 : 사무실 이전  
- 평리네거리 인근 3층
- ▷ 11월 중 : '따신 밥 한 그릇' 나눔 밥집 오픈  
- 서구청 맞은편 인근
- ▷ 12월 초 : 15주년 기념행사  
- 15주년 기념 자료집 제작  
- 작은 음악회 & 명사 초청강의

### 대구쪽방상담소 일정

- ▷ 10월 27일 ~ 28일 :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워크숍  
- 원주 백운산 자연휴양림
-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희망회 모임
- ▷ 월 1회 :  
디아지오코리아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 ▷ 10월 중 : 집중고민나누기 캠프
- ▷ 11월 ~ : 동절기 희망나눔 캠페인
- ▷ 11월 : 삼성동절기 물품나눔
- ▷ 12월 : 쪽방주민 송년의 밤

### 주거복지센터 일정

- ▷ 10월 18일 주거복지재단 :  
운영기관 점검 방문
- ▷ 10월26일 주거복지이동상담소 :  
남구 대명11동
- ▷ 11월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  
센터 중간점검 방문
- ▷ 11월24~25일  
전국주거복지센터교육훈련 워크숍 - 경주

### 만평주민도서관 일정

- ▷ 10월 말 : 도서관 이전  
- 인지초등학교 인근  
- 새로 꾸며질 도서관에 많이 많이 놀러주세요.
- ▷ 11월 중 : 문화강좌 개강  
- 독서논술교실, 만들기교실 등

### 우리, 이사 갑니다

원대동에 터를 잡은지 6년.

그간 정든 사무실 떠나, 법인과 상담소는 서구 평리동으로, 도서관은 비산5동으로 이전합니다.

법인 건물이 없다보니, 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새롭게 자리 잡은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더 많은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이전에 도움주신 분들〉

- ★ 이사경비후원 : 김영달 이사장, 이화선 후원회장, 대구쪽방상담소 운영위원회, 김병덕 쪽방상담소 운영위원장, 권영희 쪽방상담소 운영위원 홍창영 쪽방상담소 총무위원, 황종구 회원, 최병우
- ★ 이사자원활동 : 기준호 김대기 김민우 김형철 노은영 조현정 이찬영 이석모 박창식 심보석 김태국 김범호 김종욱 한상성 정호진 류기동 이현호, 최종훈 쪽방주민 홍창영 쪽방상담소 총무운영위원
- ★ 물품후원 : 차량후원(이청관), 블라인드후원(우희철)



# \* 고맙습니다

## 대구쪽방상담소 (2011.4.1~2011.9.30)

### <듣든한 후원자>

고은주	구복근	구봉주	구선화	권우현	권충근	김건우	김경미	김기환	김동현	김미숙	김미정	김봉환	김상금	김상현	김성호
김수경	김승록	김시승	김시환	김영자	김영주	김영희	김원형	김유성	김운정	김은복	김인규	김임수	김일회	김삼숙	김정현
김종훈	김지연	김진국	김천호	김학수	김현숙	김현준	김희준	남길시	남홍진	류현지	류희곤	박공률	박귀자	박남건	박명숙
박미숙	박민경	박선배	박소연	박소현	박영경	박홍배	박희웅	변영호	서병철	서재희	송영규	송정옥	신상욱	신은정	양정희
오메식	오진미	우승봉	원동건	유상희	윤지례	이건엽	이경미	이경희	이관태	이국로	이동욱	이마트	이명숙	이병술	이상록
이수	이수남	이승미	이시온	이신영	이애자	이은애	이임희	이재심	이종돈	이주연	이주화	이준호	이창현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임해진	장준배	전미경	전인규	정광옥	정대식	정명숙	정성찬	정재훈	정희영	조선국	진효림	천병우	천윤중	최규영
최병우	최윤중	최현진	한경희	한무용	황진니	해피빈									

### <물품후원>

- 김주형 LPG가스난로 3대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자 40개, 소파 2세트
- 대구은행 속옷 400벌, 치약 400개
- 대구의료원 간호사 생필품 20박스
- 대봉교회 반찬 40인분 \* 4회, 라면 40박스
- 대성에너지 선풍기 50대
- 동구자원봉사센터 무우 300개
- 마음의 등불 거리급식음식준비 300인분 \* 15회
- 부처님 나라 쌀40kg 1포, 30kg 1포
- 비산동 주민 쌀 30kg 1포
- 시지적십자봉사단 반찬 30인분
- 지리산 산내퍼머미 사업단 무항생제닭 10마리
- 대성에너지 클린사업 : 월 1회 \* 3가구(도배,장판)
- 김병덕 : 선풍기 5대

- 청하이 무상사 거리급식음식 준비 300인분 \* 6회
- 평화홀딩스 쌀 20kg \* 72포
- 프라이마트 라면40개들이 3박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선풍기 20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라면 100박스, 생필품
- 한국전력대구본부 거리급식음식준비 300인분
- 본가제사 명절차례음식
- 케이티앤지 봉사단 송편 70인분
- 오상라이스(김장섭) 쌀 20kg, 2포
- 이창현 신품상의 10벌
- 이창권 안전화 1켤레
- 디아지오코리아 반찬 40인분 \* 월 1회
- 우미INT : 쪽방지역, 사무실 블라인드(250만원 상당)
- 하상만 : 선풍기 3대

### <쪽방에 도움주시는 약국>

경명약국 경북약국 경성약국 광산약국 광양약국 극동약국 대보약국 대일약국 대지약국 동아약국 동재약국 문화약국 바른약국 백성약국 보건약국 보림약국 보성약국 수정약국 신성약국 안일약국 영남약국 우성약국 유명약국 유창약국 유한약국 이화약국 장수약국 제일약국 져마약국 조인약국 천일약국 청심약국 추계약국 김스약국 평리약국 하림약국 한독약국 해인약국 건강당약국 굿모닝약국 뉴시대구약국 메디팜서진약국 북비산약국 새달성약국 새생명약국 새솔밭약국 새현대약국 서약국 신약국 신평리약국 온누리미소약국 정촌당약국 청암당약국 최약국 한사랑약국

### <쪽방진료소와 협력하는 병원, 약국>

M병원 김효정치과 약손약국 영남이비인후과 한영안과 한건호비뇨기과 대구의료원 누가항문외과 광개토병원 늘푸른약국

수 입			지 출		
합 계		318,684,923	합 계		318,684,923
사업수입	명절특식사업	740,000	사무비	인건비	78,256,190
	기획사업	38,000,000		운영비	18,070,511
	공동부업사업	1,252,901		업무추진비	386,000
	프로그램신청사업	5,900,000		소계	96,712,701
	경과적일자리창출	1,655,640	사업비	직업재활사업	1,272,901
	대구주거복지센터	87,801,040		생계지원사업	61,997,190
	소계	135,349,581		기타사업	1,970,000
보조금	보조금수입	114,920,000		프로그램신청사업	5,397,990
수입	후원금수입	13,604,537		폭염대책지원사업	3,753,770
	소계	128,524,537		화랑자활사업	1,618,800
이월금	전월이월금	36,515,678		공중보건의 활동비	4,200,000
잡수입	예금이자수익	29,197		경과적일자리창출	1,655,640
	기타 잡수익	16,065,930	대구주거복지센터	74,780,518	
	소계	52,610,805	잡지출	13,880,000	
전입금	법인전입금	2,200,000	소계	170,526,809	
	소계	2,200,000	잔액	51,445,413	

★ 흑, 명단에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전화 : 053-356-0465 / 담당자 : 김윤정, 최은경)

# 사랑을 나누주세요



처음의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당연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할 날을 꿈꾸며 '사랑 나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 방법 하나 '친.친.더.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함께 먹고 싶고, 기쁨은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듯이,

나보다 너를, 너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일도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 • 정기 후원자가 되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5)나 인터넷([www.vongsa.org](http://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더, 후원금 인강할께요.  
☎053-356-0468

## 방법 둘 '자발적 후원금 인성'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지역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이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발적 후원금 증액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기다리겠습니다.

### ■ 이마트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 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칠성점 : 2번

만촌점 : 164번

시지점 : 80번

성서점 : 135번

반야월점 : 92번

### ■ 필요합니다.

★ 쪽방주민, 다문화가족 : 세탁기, 쌀, 라면, 옷 등 동절기 물품

★ 만평주민도서관 : 책, 책장, 책상, 에어컨, 카메라 등

★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희망캠페인 시작합니다.

(김장, 점퍼, 연탄, 동내의, 점퍼, 전기장판 등 마음 따뜻한 벗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 ■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